박연수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상생의 길을 내는 산 사나이

3일 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지금도 만나려고 기다린다.

2009년 9월 25일 아침 히말라야 히운출리(해발 6,441m)는 빛났다. 정상에 쌓인 눈은 빛을 만나 빛났고 두 사나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직지원정대 민준영·박종성이다. 8시 15분 베이스캠프 무전이 요란한 잡음을 낸다. 박연수(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원정대장은 서둘러 무전기 주파수를 맞춘다. 민 등반대장이 말문을 연다.

"새벽 일찍 출발했다."

"현 위치는?" "5,500m 지점이다."

"컨디션은?"

"둘 다 컨디션 좋고, 날씨 좋고, 진행 속도도 좋다. 5,800m에서 자는 게 목표다. 등반 속도가 빨라지면 늦더라도 빙하 지역에 올라서겠다. 6,000m 정도."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둘 다 좋다. 시간하고 싸움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다. 좌측에서 우측 골로 진행하려고 설사면 올라섰다."

"그래 조심해라." "아 그리고 시간에 맞춰 무전하기 쉽지 않다. 다음 무전은 오늘 등반 끝내고 하겠다."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말라. 밑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교신이 끝났다. 아쉬웠다. 둘의 목소리, 숨결을 귀로 만진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누구도 마지막을 예감하지 못했다. 히말라야 신만이 알 일이었다. 무전을 마친 그는 비디오카메라를 꺼냈다. 어제 교신에서 민 대장이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 위치에서 전진 캠프가 잘 보이니 아침에 카메라로 보면 우리가 보일 겁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신에 찬 목소리였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에 두 대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넓디넓은 높디높은 히말라야에 점처럼 박힌 두 대원이 보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그는 카메라 줌을 당겼다 밀었다 하며 숨은 대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오 무렵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히말라야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안개를 마셨다 뿜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한다. 마음에 두지 않고 하산 준비를 위한 회의를 했다. 세 가지 하산 루트를 점검하고, 마중 준비, 음식 준비까지 일일이 체크했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산이냐고요? 순조로웠기 때문이죠. 민 대장의 냉철하고도 예민한 판단, 박 대원의 침착함까지 둘은 환상의 콤비였으니까요. 날씨도 좋았고."

어느새 저녁이 다가왔다. 그 사이 무전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다. 전날은 한 시간 단위로 무전을 주고받았지만 오늘은 하루 일정을 마친 뒤 무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베이스캠프에 있던 대원들이 하나둘씩 식당 텐트로 몰려든다. 식사하면서 '치직, 치직' 소리를 내는 무전에 귀를 기울였다. 밖은 이제 땅거미가 내려앉는다. 개와 늑대의 시간. 애매모호한 낮과 밤의 경계에 접어들자 캠프 안은 말수가 줄어든다. 이제 말하는 이는 그뿐이다. 적막이 흐른다.

"야 박수환 무전기 떨어뜨릴 수도 있지? 멀어서 무전이 잘 안 되나? 늦더라도 빙하지대에 오른다더니 좀 무리하는 건가? 무전기 배터리 방전된 건가? 날씨가 추워서 작동을 안 하는 건가?"

그가 혼잣말로 토해낸 오만가지 상상력은 냉랭한 텐트 안을 망령처럼 떠돌았다. 10시 인가 싶더니 이내 11시, 또 12시다. 시간을 잡아 둘 수 없었다. 모든 대원에게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쉬라고 한 뒤 그는 다시 무전기를 주시한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무전이 문제라고 굳게 믿었다. 낮에도 노트북·인터넷 연결망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터라 기계 오류에 희망을 걸었다. 모두가 돌아간 텐트 안은 적막이 흘렀다. 그는 무전기를 품에 안았다. 체온이 심장박동을 유지하듯, 무전도 작동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늦은 밤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성 둘이 텐트로 들어온다.

"이 산중에 등산복도 안 입고 웬일이오?"

둘은 다짜고짜 말도 없이 내 품의 무전기를 빼앗는다. 몸에 힘이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완력을 이겨낼 수 없다.

"그 무전기는 안 돼요. 내놔요. 에잇, 제발 내놔요. 제발요…."

아무리 울부짖고 애를 써봐도 사내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텐트를 빠져나갔다. 울면서 일어났다. 꿈이었다. 무전기는 품에 그대로 있다. 1시간 남짓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여전히 무전기는 울리지 않았고, 야속한 여명은 그들의 부재를 각인했다.

김동화·박수환 대원을 보내 1차 수색을 하게 했다. 박 대원은 애초 민·박 두 대원과 함께 정상 등반에 나섰다가 컨디션 저하로 캠프로 복귀한 터였다. 둘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안개마저 눈을 가렸다. 그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대책회의를 한 뒤 충북산악연맹에 사실을 알리고, 네팔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대사관은 설빙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무전 연락이 안 돼요. 헬기라도 띄웠으면 하는데 방법을 좀…."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여긴 그런 것 하는 데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낼 테니 방법 좀 찾아줘요. 대원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요청 좀 해 주세요."

"여기 등산 올 때 우리 허가받고 왔나요? 네팔서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제발요."

"당신들 여행사 통해서 왔으니 급하면 여행사 통해서 해결하세요."

화가 욕을 밀어냈지만 절박함이 가까스로 눌렀다. 대사관의 무사안일이 오히려 답을 제시했다. 여행사. 곧 돈이 답이었다. 여행사 통해 헬기를 요청하자 다음 날 아침 헬기가 도착했다. 모두 5차례 헬기를 띄웠다. 모든 대원이 번갈아 가며 두 대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발자국조차 만나지 못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빙벽, 크레바스(가라진 빙벽 틈), 암벽 코앞까지 다가갔으며, 현지 셰르파, 롯지(산장), 마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찾았다. 정상 부근의 눈사태에 대비해 크레바스를 정밀 수색했고, 북벽 등반 루트, 서북릉, 남동릉, 하산 루트까지 살폈다. 롯지 주인에게 돈을 쥐어 주며 혹시라도 소식이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두 대원과 헤어진 뒤 그는 곡기를 넘기지 못했다. 숭늉으로 연명했다. 며칠 사이 담배 100갑은 족히 피웠다. 대원들이 서로 말렸다. 한 대원은 "담배를 너무 피워 손이 온통 누렇게 변할 정도였다.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고 회상했다.

"2박3일 치 식량만을 가지고 나갔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두 대원은 물론 배낭, 모자, 옷, 로프 뭐든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포기할 수 없었죠. 갖가지 추정들이 나왔지만 말 그대로 추정이지요."

두 대원이 사라진 지 10일 만인 10월 5일 베이스캠프에서 철수했다.

"정상에서 소식 전할게요. 3일 뒤 뵙겠습니다."

'3일 뒤'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직지 루트

그들이 히말라야 히운출리를 찾은 것은 '직지 루트' 개척을 위해서다. 2006년 가을 산악구조대 훈련을 하다 직지원정대를 꾸렸다.

"정상에 오르는 것만 바라는 등반, 셰르파에 의존한 등반보다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등반을 해보자. 진정한 알파인 정신으로."(민준영·박종성)

둘의 알파인 정신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낳은 본향의 후예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뜻에서 '직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산악인으로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계의 봉우리에 '직지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 '직지 루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산행을 하고 싶었다.

2007년 파키스탄 히말라야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상 고온으로 눈이 녹아내리고 낙석이 잇따르는 바람에 150m를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와 대원들은 다시 도전했다. 2008년 6월 16일 오후 4시께 파키스탄 북부 카라코람 차라쿠사에 있는 이름 없는 히말라야봉 6,235m에 태극기와 '직지(JIKJI)기'를 꽂았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파키스탄 산악협회 등과 협의에 따라 이 봉우리를 '직지봉'이라 이름 짓고, 그들이 처음 오른 길은 '직지 루트'가 됐다.

이듬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히말라야 히운출리 북벽을 다시 올라 '직지 루트'를 개척하고 싶었다. 어느 때보다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 그야말로 드림팀이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끝내 그들에게 새 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들뿐 아니라 지금껏 누구에게도 길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냉혹함을 보인다.

이제 산악인들은 두 대원을 영원히 가슴에 묻었다. 충북 산악구조대 직지원정대 대원들은 지난 2010년 9월 25일 히운출리 돌탑 앞에 두 대원의 사진과 '직지 루트를 개척하려던 두 대원의 창조적 개척 정신과 알파인 정신을 기리며'라는 글을 새겨 선물했다.

민 대장의 동갑내기 아내는 사고 한 달 뒤 남편이 탔던 차를 타고, 남편이

걸었던 길을 따라 히운출리 북서벽 앞에 소주 한 잔을 놓고 넋두리했다. 정씨는 '솔봉이' 민 대장을 그렇게 가슴에 담았다. 등반 당시 북벽을 택한 민 대장과 달리 서릉을 등반하려다 실패했던 홍정표 대장은 지난해 늦깎이 결혼을 한 뒤 아내와 히운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 왔다. "동생들에게 형수 인사시키려고 찾았죠. 녀석들이 축하해주면 잘 살 것 같은 믿음도 있고요."

대장님이 잘돼야 우리 아들한테 위로가 되잖어

하지만 그는 그들을 놓아주지 못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그는 편치 못하다.히운출리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두 대원의 영결식장에 들어 가족들에게 함께 돌아오지 못한 죄를 청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고 민준영 대장의 아내도, 고 박종성 대원의 어머니도 두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영결식을 마치고 유령처럼 집에 돌아온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집에만 있었다.

"무서웠죠.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잊으려고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겨웠죠. 머리에 있던 기억이 가슴에 각인되곤 하는 고통의 나날이었죠."

잠을 자려고 술을 마셨다. 하지만 괴로울 뿐이었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분평동 집 앞 큰 차도를 걸었죠. 저도 모르게 그 길이 넓은 들판처럼 느껴졌죠. 그 길을 계속 걸으면 두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녀석 둘이 심심해하는 것 같아 가서 놀아주려고 했죠. 혹시 차라도 쳐 주면 녀석들한테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 이후로 그가 술을 마시는 날엔 늘 아내가 마중을 나온다. 그의 아픔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박종성 대원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대장님 너무 힘들어 마세요. 못난 내 아들 때문에 제발 힘들어 마요. 대장님 제대로 사는 게 우리 종성이 위하는 길이잖우. 대장님이 잘돼야 우리 아들한테 위로가 되잖어. 그러니 이제 힘내. 응."

또 참 많이 울었다. 울어도 울어도 씻겨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이 컸다. 수면제 처방을 받아 한꺼번에 털어 넣으려 한 적도 있었다. 아침마다 후회했지만 술로 보내는 날이 많았다. 하루는 괴산 조령산에서 백두대간 생태관 개장식이 있어 참석하려고 집을 나섰다. 괴산 읍내를 빠져나갈 무렵 구토와 두통, 현기증, 통증이 한꺼번에 다가왔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 보니 병원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협심증까지.

트라우마는 오래 갔다. 방송·언론에서 히말라야, 히운출리의 '히'자만 나와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렀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조심스레 PC를 켰다. 저장된 사진을 한 장 두 장 클릭했다. 또 생각이 났지만 견딜 만 했다. 4주기 때 추모비 세우고, 5주기 때 진혼제를 지내고 나서야 진정이 됐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려 한 두 친구기에 너무 아깝고,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친구, 산, 이웃의 소중함이 더 커지더군요."

난 산에 다녀야 하나 보다

그는 산사나이다. 아니 그가 산이다. 물과 바람과 바위와 나무와 고난과 고통과 환희와 벗하며 산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 어디로 갈까? 취미, 특기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무조건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최고였다.

"야 어디로 갈껴? 등산반 한 번 가볼랴? 재밌을 것 같은디." "그랴 그람."

그가 산과 인연한 첫 장면이다. 그는 그렇게 청주 신흥고 등산반이 됐다. 등산반을 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정우춘 선생님'이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풀어 놓는 세상 이야기가 좋았다. 이야기만 들은 것은 아니었다. 2학년 때 지리산 종주 산행 얘기가 나왔다.

"갈 사람 손 들어." 속닥속닥 역적모의가 시작됐다.

"어떻게 할까?" "어쩌긴 뭘 어째 놀러 가니까 무조건 손들어." "그랴 그럼."

그와 몇몇은 지리산보다, 노고단보다, 천왕봉보다 기차 타고 여행 간다는

것 하나로 들떠 있었다. 게다가 충북대 산악부 형들도 함께한다고 하니 여간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여름방학이 되고 며칠 지난 뒤 밤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에 다다랐다. 밤늦은 시간 꽤 많은 이들이 역에 있었다. 머리보다 높은 엄청난 배낭을 멘 학생들도 꽤 보였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기차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 0시 무렵 기차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으로 들어오자 얼치기 등반객들은 쏜살같이 객실로 몸을 밀어 넣었다. 목적이 기차 여행이었던 철부지들은 먹고, 마시고, 부르고 그렇게 새벽을 달렸고, 동틀 무렵 구례역에 닿았다. 누구도 '죽을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오늘은 노고단까지만 간다."는 말이 떨어졌을 때도 산행 뒤 뭐 하고 놀까를 궁리하는 녀석들이었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마친 뒤 화엄사를 지나 산행이 시작됐다. 그와 녀석들의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토해내는 단어도 극히 단출하다.

"멀었어요?" "얼마나 왔어요?" "좀 쉬었다 가요" "물 좀" 같은 말을 수백 번 되풀이한 뒤에야 노고단은 넓은 평원과 시원한 바람을 허락했다.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도 사실상 첫 산행인데. 노고단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죠. 하지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맛에 산에 오르는구나 했죠."

산에 완패를 인정하자 오히려 산행이 쉬웠다. 나무도, 돌도, 숲도, 먼 산도 눈에 들어왔다. 다시 한나절을 걸었더니 벽소령이다. 대학생 형이 막걸리를 사러 간다고 했다. 친구 이종창과 따라나섰다. 마천까지 족히 20리 길이지만 숨도 틔고, 다리도 어느 정도 풀려 산에 익숙해진 터라 자신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거리였다. 호기 있게 막걸리를 사 들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탈진했다. 어둠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그때 봉우리 위쪽에서 '종창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종창이가 깔아졌어요!" 냅다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어디로!" 하는 답이 왔다. 신경 쓰지 않았다. 구원병이 곧 오리라는 생각에 안심됐다. 정 선생님과 대학생 형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종창이가 깔아졌어요."라는 말을 "종창이가 사라졌어요."라고 들었단다. 메아리가 만들어

낸 착오였다. 그 일로 대학생 형들은 밤새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고, 날이 새자 하산해야 했다. 선생님이 내린 벌이었다.

그 일 뒤 이종창·이재호 등 몇몇과 신흥고 등산반을 제대로 꾸렸다. '사라졌던' 이종창이 반장을 하고 1학년 후배까지 뽑았다. 3학년이 되고서는 화양동, 희양산, 증평 암장, 우암산 등 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땐 참 몸이 좋았어요. 지금은 제 몸이 이렇지만 그땐 62~63㎏에 40㎏짜리 배낭을 메고 날아다녔죠." 믿기지 않는다.

고 3을 잊고, 산에 미쳐 살던 그들에게도 입시가 다가왔다. 이 반장이 소집령을 내렸다.

"니들 대학 어떻게 할래?" "난 충북대 사회심리학과"(이종창) "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박연수) "난 건국대 축산과"(이재호)

가는 길이 달랐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럼 충북대 산악부는?"

셋 모두 충북대에 원서를 냈다. 그리고는 고 3 겨울방학 내내 설악산으로 20박 장기 산행을 떠났다. 충북대 산악부와 함께.

"그때 엄홍길, 박재필(사람과 산), 김영식 등 산악인을 산에서 만나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죠. 지나고 보니 참 산에 미쳐 살았네요."

이제 내가 기다린다

그는 참 잘 기다린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지금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

1990년 2월 대학을 졸업하던 해 몇몇 산악인들과 충북등산학교를 만들어 또 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다 서울의 한 병원, 청주의 작은 직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주업은 산이었다. 설악산, 조령산, 희양산, 지리산, 도명산 등 산에서 지낸 날들이 평지에서 지낸 날보다 많을 정도였다.

그는 1993년 겨울 어느 날 청주등산코너에 있었다. 산사내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문이 열렸다. 갈색 바바리코트, 긴 머리, 키가 큰 한 여성이 들어왔다. 햇빛이 등을 밀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정갈한 매무새의 그녀가 또각또각 다가오자 낡은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사내들과 농을 주고받던 철부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아야 했다. 자석의 자력을 느낀 쇳가루처럼 그의 온 신경은 그녀를 향했다. "1월 1일 새해맞이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등산화가 필요해요. 두타산 갈 거고요."

그는 온 감각을 벼리어 초능력 같은 귀를 세웠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자 그는 가게 아는 형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형 아는 사람이여. 뭐하는 사람이랴?"

"옥천중 근무하는 데 방통대 다닌다지 아마. 새해 등산 간단다. 두타·청옥으로."

"형 어때 저 여자. 학교 근무하면서 방통대까지 다니면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저 정도면 살림도 잘하겠지. 그렇지."

"얌마 정신 차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하지만 그는 엄청난 착각에 기반을 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내가 이래봬도 4년제 대학 나왔는데 학교 양양(급사) 정도는 꼬실 수 있지. 한 번 해보자."

그는 1월 1일 방통대에 나타났다. 마치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가장한 채였다. 당시 국외 원정하는 등반가들이나 신을 수 있는 비브람 가죽 등산화 등 가지고 있는 최상의 복장을 했다. 잘 보이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자주색 오리털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이 알은 체를 한다. 작전대로다.

"안녕하세요." "아 예."

낯익은 사람. 그녀였다. 한은순.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전엔 키가 컸었는데 지금 보니 작고 귀여운 얼굴이다. 그래도 좋았다. 차에 올랐다. 뒷자리에 앉아 동태를 살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그녀의 자리가 빈다. 잽싸게 다가가 털썩 앉았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목적지가 빨리 다가왔다. 4시간이 4분 같았다.

"요즘 사람들 왜 시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살면 좋을 텐데." 이 말은 지금도 기억한다.

"신발 끈 단단히 매요. 겨울 산행이니까 아이젠, 스패츠 꼭 착용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서 1m 이상 떨어지지 말아요. 위험하니까."

호통에 가까운 지시에 그녀가 잘 따른다. 내심 기분이 좋았다.

"내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네. 나한테도 호감이 있나…."

산행을 마치고 바닷가에서 회를 먹고 버스에 올랐다.이번엔 아예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녀 옆자리를 꿰찼다. 이런 저런 얘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옥천중에 근무하는 데 급사가 아니라 한문 교사란다. 대학도 4년제 졸업하고, 국어 교과 익히려고 방통대를 또 다니고 있단다. 4년제 대졸자라는 알량한 우월감으로 눌러보려다 완전히 부서진 순간이었다. 여하튼 그 인연이 연인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 그는 또 이 산, 저 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해 겨울방학 무렵. 그녀에게서 이별 통보가 왔다. 그는 영문을 몰랐다.

"아니 어떻게 화양동 얼음판에서 손까지 잡았는데 헤어질 수가…." 그는 바보였다. 한참 뒤에야 그는 깨우칠 수 있었다.

"모든 게 내 맘대로였죠. 언제나 산이, 그리고 친구가 먼저였고 그녀는 그 다음이었죠. 그랬으니 차이는 게 당연하죠."

편지도 써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그녀를 돌릴 수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그녀의 친구를 통해 그녀가 청주 동중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다. 음력 7월 25일 그녀의 생일. 학교로 장미 99송이를 보냈다. 눈앞의 산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그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승부엔 작전

과 내부 공모자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는 무심천 넘어 서울 해장국집에서 뚝배기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주도 한 잔 걸쳤다. 무심천 풍물다리 노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내부 공모자한테 연락이 왔다. 내부 공모자는 고교 동창의 동생이었다.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가볍게 무심천을 건넌 적은 또 없을 만큼 휘리릭 그녀에게로 갔다. 생일이니까 노래방에 가자 했다. 작전 대로였다.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 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그 길로 진천 초평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바람잡이를 먼저 내려 주고 청주역 근처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진심으로 원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전화해도 되나?" "예."

3년 만에 다시 만났고, 3개월 뒤 12월 23일 결혼했다.

"정말 좋기도 했지만 또 헤어질까 봐 겁이 났죠."

선녀의 날개옷이 사라지면 진실은 드러나는 법. 결혼한 뒤에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등산하는 날 그녀는 그가 등산 가이드인 줄 알았고, 첫 산행이어서 가이드가 당연히 다그치는 줄 알고 모든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함께 등산했던 방통대 동기들은 그가 그녀의 애인인 줄 알고 그의 행동을 당연시했다. 당시 그녀를 흠모하던 한 남자는 그의 자연스러운 도발에 그만 포기를 했다는 것도 전설처럼 전해진다.

영원히 아픈 손 아이들, 그리고 아내

산에 빠져 사는 사이 육아는 늘 아내 차지였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을 빌렸다. 딸 윤지는 성격이 급했던지 일곱 달 만에 세상에 나왔다. 3월에 났지만 병원에서 두 달을 더 보낸 뒤 5월이 돼서야 집으로 왔다. 그는

그해 8월 인도 가르왈 히말 트리슐(7,120m)로 등반을 떠났다. 그가 떠난 사이 보은은 시간당 90mm가 쏟아진 집중 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났다. 이 물난리로 3명이 숨졌으며, 종곡천이 범람하면서 이평리 일대가 침수하는 등 악몽의 나날이었다. 아내는 보자기에 윤지를 싸안고 보은고등학교로 대피해야 했다.

둘째 형빈이는 7월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그해 8월에 미국 요세미티 루킹페어 등반을 떠났다. 불량 아빠, 불량 남편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 다닌다.

사람, 산에 묻혀 살았다. 보은 부모님 댁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청주에서 보은까지 가서 자율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적었다.

"딸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고집 센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데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는 왜 우릴 안 안아줘?" 망치로 한 대 제대로 맞았죠."

그는 그가 잘하는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따려 노력했다. 그동안 형빈이, 아내와는 6차례, 윤지와는 3차례 히말라야에 동행했다. 형빈이는 2011년 여덟 살에 히말라야 오지탐험단 최연소 단원으로 처음 히말라야를 찾았다. 11박 12일 동안 히말라야 오지 마을 10여 곳을 돌아다니며 현지 친구들과 어울렸다. 하루 평균 8~10km를 걷고, 4,000m 이상 산군에서 지냈지만 거뜬했다. 이듬해 안나푸르나를 찾았고, 2013년엔 낭가르피크(5,068m)에 오르는 등 열 살에 히말라야 5,000m를 경험했다. 2015년엔 히말라야 기후변화 탐사대 대원으로 안나푸르나를 다시 찾았다. 힘들지만 세상이 넓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라는 아비의 말에 따라 그는 조금씩 산을 닮아 가고 있다.

그는 글을 빌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윤지, 형빈아 세상에 태어났으면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그 행복을 선택할 권리 또한 자신에게 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삶의 길과 불행한 삶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함께하면 행복한 삶의 길로 갈 것이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태하면 힘들고 어려운 즉 불행한 삶의 길로 갈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조언할 힘 밖에 없단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선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은 너희들의 큰 울

타리가 될 것이다. 항상 함께 상의하고 존중하며 사회에 필요하고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활동가는 독립운동가

활동가 박연수는 '오지랖'의 대명사다. 박연수라 쓰고 오지랖이라 읽어도 무방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2002~),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집행위원장(2004~), 히말라야 오지마을 체험단장(2005~), 두꺼비친구들 이사(2008~), 백두대간연구소 소장(2010~),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2015~), 풀꿈환경재단 이사(2013~), 속리산둘레길 이사장(2015~), 이재민 사랑본부 공동대표(2017~),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2014~)…. 지금 직함만 10개다. 직지원정대장, 대한산악구조연맹 이사, 충북그린리더협의회 회장, 무심천 100일간의 실험 추진단장 등 지나온 이력도 수두룩하다. 백두대간·미호천·뉴질랜드 등 탐사 보고서도 여러 편 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빼지 못한다. 2002년 무렵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백두대간보전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 회원과 교분을 쌓아 가던 시절이다. 그때 중부자원재생공사라는 철거 업체를 운영했다. 벌이도 괜찮았다.

"하루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났는데 독립운동가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충격이었죠. 저는 그저 산에 오르고 쓰레기 치우는 정도의 일을 했는데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힘쓰는 활동가들을 보고 적잖이 놀랐죠."

무엇보다 '책임은 참여로부터'라는 말이 와 닿았다. 힘닿는 데까지 참여하고 도왔다.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누군가 말했다.

"어이 박 사장 시민단체 위원장 정도 하면 청주시에서 일거리 막 주겠네. 앞으로 걱정 없겠다."

"다 알고 뭐…." 그냥 대충 농으로 받았지만 마음에 걸렸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200m)에 모인 기후변화 탐사대원들

(사)이재민사랑본부 한여름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담쟁이 국수 일일점장을 마치고

비산업분야 에너지 절감대책 강의

칼라파트라 정상에서 에베레스트를 배경으로

한남금북정맥 탐사

"내가 순수하게 해도 남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괜한 오해로 시민단체의 순수한 활동에 해가 될까봐 일을 그만뒀죠. 솔직히 시민단체 활동 마치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도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는 사회적 기업 청주시민센터에서 일하다 2014년부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

그의 오지랖 반경은 국외를 넘나든다. 그는 네팔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역에 몇 안 되는 네팔 활동가로 통한다. 그의 오지랖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다. 그는 지금까지 네팔 히말라야를 24차례 찾았다. 직지 원정대와 함께 2007년부터 5차례 히말라야를 올랐다.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를 꾸려 2006년부터 3차례 히말라야 산군의 학교를 찾아 도왔다. 2009년부터는 히말라야 오지 마을 체험단을 꾸려 8차례에 걸쳐 히말라야의 두메산골 마을을 찾아 학용품, 의약품, 옷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하늘같이 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히말라야입니다. 우리가 낡아 입지 않는 옷, 잘 쓰지 않는 학용품, 흔한 의약품이 그들에겐 소중하게 쓰입니다. 우리에게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자연을 선물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려는 마음이지요."

"다딩의 모든 집이 무너졌어요. 도와주세요."

2015년 3월 29일 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주선하는 친구 다말라가 보낸 것이다. 네팔 지진 참사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터였다.

"많은 사람이 죽고, 물·전기도 끊겼다. 많은 이를 위해 텐트를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받은 그는 직지원정대, 히말라야 오지마을 체험단, 여행사, 지인 등 네팔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을 총동원했다. 아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단체와 뜻을 모아 '지구촌 하나 되기 나눔과 동행'이란 네팔 돕기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모임을 통해 성금 모금에 나서 1,000여만 원을 모았고, 전기시설, 천막 등을 지원했다.

네팔에 학교도 만들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60여km 떨어진 셰르파족 전통 마을 신두팔초크 카질룽 마을이다. 22가구 50여 명 주민이 사는 마을은 2015년 지진 때 집, 학교 등 모든 것을 잃었다. 그와 지구촌 하나 되기 나눔과 동행 회원들은 지난해 6월 이곳에서 길을 내고, 학교 계단을 만드는 등 손수 학교를 만들었다. 비가 개면 발아래 구름이 펼쳐지는 '구름 위의 학교'.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교를 선물했다. 마을은 학교 이름을 '칼린초크 직지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네팔 정부는 교사를 파견하는 등 정식학교로 인증했다.

"마을에 축복이 내렸다. 학교가 생겨 너무 좋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학교를 통해 자라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축제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꾼다. 한국이나 네팔이나 경계를 두지 않는다.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사회는 가진 자와 배운 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약자들에게는 버거운 삶이 되고 있죠."

촛불을 지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묶는 일도 고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 공감해요.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지요. 촛불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무기보다 무섭고, 강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묶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모델이 고향 보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처럼 고향의 길이 명품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의 산파 역할을 했다. 속리산 둘레길은 충북 보은, 경북 문경, 경북 상주 등을 잇는 길이다. 숲길(67km), 마을·농로(113.3km), 하천길·도로(13.9km) 등 194.2km의 대장정이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산과 물, 길과 길, 농촌과 도시, 지자체와 지자체를 잇는 상생의 길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 한 데 어울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닐까요?"

그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꾼다. "새로운 지방자치가 필요해요. 젊고 역동적인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진정한 자치지요. 촛불 혁명에 이어 자치 혁명도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는 활동가가 더는 독립군이 아니라 더불어 산을 오르는 시민의 지기가 되길 꿈꾼다.

오윤주